2024 년 2 월 1 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 김지현 jeehyun12@kiwoom.com



미 증시, FOMC 에서 3 월 금리인하 가능성 일축에 급락

미국 증시 리뷰

31 일(수) 미국 증시는 알파벳, MS 의 실적 가이던스 실망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FOMC 에서 3 월 금리인하는 없다는 파월의장의 발언에 급락 (다우 -0.82%, S&P500 -1.61%, 나스닥 -2.23%) 전업종 하락, 헬스케어(-0.1%), 유틸리티(-0.3%), 필수소비재(-0.7%)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 통신(-3.9%), IT(-2.1%), 에너지(-1.9%)의 낙폭이 가장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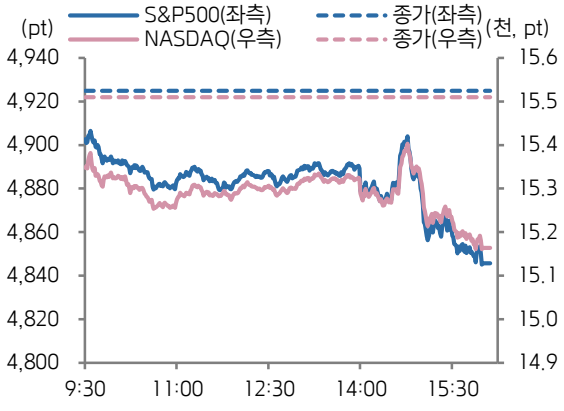
1 월 FOMC 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만장일치 동결, 기존 양적 긴축 규모 역시 유지. 지난해 9 월과 11 월, 12 월에 이은 4 번째 동결로, 미국과 한국(연 3.5%)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 F 연준은 성명서에서 "최근 경제 활동은 지표상으로 안정적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일자리 성장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견조하다"며 "물가 상승은 지난해에 비해 완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

기자회견에서 파월의장은 "오늘 회의 결과 현 시점에서 3 월 회의 때에 금리를 인하할 확신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 "3 월 회의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들 수준까지 도달할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 이어 "지금까지 상품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지만 상품 외에 다른 부문에서도 인플레 완화에 더 많은 기여가 필요하다"며 인플레가 둔화되었음을 인정.

1 월 ADP 민간고용은 10.7 만건(예상 14.5 만건, 전월 16.4 만건)으로 예상치 하회. 집계측은 레저 및 접객업, 건설업, 운송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고용이 둔화되었으며 기업이 고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작년 초에 비해선 속도가 느리다고 언급. 그럼에도 "고용과 급여의 둔화에도 인플레이션의 진전으로 미국과 전 세계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고 분석. 한편 4 분기 고용비용지수(ECI)는 QOQ 0.9% (예상 1.1%, 3 분기 1.0%) 기록하며 2 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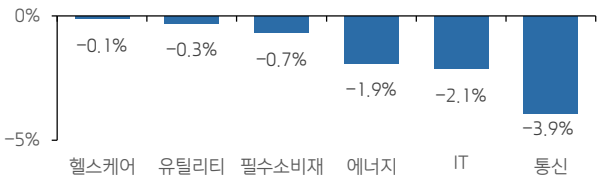
알파벳은 4 분기 매출 YOY 13% 증가한 863 억 1000 만달러로 월가 전망치인 853 억 3000 만달러를 상회, 영업이익 역시 YOY 30% 증가. 그러나 핵심 사업인 광고 부문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 및 향후 AI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관련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코멘트에 주가 약세, 7%이상 하락한 것은 지난 10 월 25 일 이후 최대 낙폭.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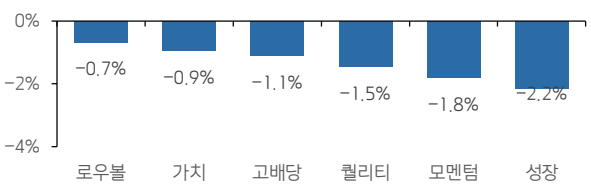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97.09	-0.07%	USD/KRW	1,334.65	+0.39%
코스피 200	336.24	-0.37%	달러 지수	103.52	+0.12%
코스닥	799.24	-2.4%	EUR/USD	1.08	+0.02%
코스닥 150	1,241.75	-2.72%	USD/CNH	7.19	-0.01%
S&P500	4,845.65	-1.61%	USD/JPY	146.93	+0.01%
NASDAQ	15,164.01	-2.23%	**채권시장**		
다우	38,150.30	-0.82%	국고채 3 년	3.258	-1.2bp
VIX	14.35	+7.81%	국고채 10 년	3.345	-1.6bp
러셀 2000	1,947.34	-2.45%	미국 국채 2 년	4.207	-12.8bp
필라. 반도체	4,260.92	-1.37%	미국 국채 10 년	3.912	-12bp
다우 운송	15,515.80	-1.65%	미국 국채 30 년	4.166	-8.4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648.40	-0.31%	WTI	75.85	-2.53%
MSCI 전세계 지수	737.65	-0.09%	브렌트유	81.71	-1.4%
MSCI DM 지수	3,236.76	+0.01%	금	2067.4	+0.8%
MSCI EM 지수	980.59	-0.97%	은	23.17	-0.24%
MSCI 한국 ETF	59.47	-0.73%	구리	390.6	-0.1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5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32.7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예상보다 덜 비둘기파적인 1 월 FOMC 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M7 실적 부진 이슈의 국내 증시 기반영 가능성 3. 1 월 한국 수출 실적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 월 FOMC 결과 및 시사점〉

a. 이번 1 월 FOMC 는 기존 시장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했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지난 12 월 FOMC 에 비해 덜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곳곳에서 드러났던 것으로 판단.

b. 우선 성명서 상 "추가적인 정책 강화" 문구를 삭제함과 동시에 "어떤 조정(Any adjustments" 문구를 삽입했다는 점이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중 "모든 위원이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이번 긴축 사이클 종료에 방점을 찍었음을 암시하는 대목. 또 양적긴축(QT) 축소도 이번 회의에서 이야기했으며, 심도있는 토론은 3 월 FOMC 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 가능,

c. 문제는 인하 시점에 관한 것인데, 최근까지도 시장은 3 월 금리인하 시작에 대한 베팅은 좀처럼 철회하지 않고 있었음.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의장은 "이번 회의 결과에 기반했을 때, 아직은 3 월 인하까지 단행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시장의 3 월 인하 기대감을 차단한 것으로 보임.

d. 최근 6 개월 간 물가 데이터가 좋게 나왔지만, 2%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야 인하할 것이며, 이중 상품 인플레이션 이외에 다른 품목에서의 인플레이션 하락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요인. 앞으로도 연준이나 시장 모두 헤드라인 보다는 코어 인플레이션에 민감도를 더 높게 가져야할 것임을 시사.

〈1 월 FOMC 결과를 반영한 향후 증시 방향성〉

a. 파월 의장 기자회견 이후의 "미국 증시 낙폭 확대 & 달러 상승폭 확대" 현상을 보면, 직관적으로 1 월 FOMC 는 증시에 중립 이하의 결과로 끝이 났다는 결론을 내릴 수 가 있음. 하지만 1 월 FOMC 결과만 놓고서 향후 주식 포지션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3 월 FOMC 전까지 치러야하는 2 번의 고용 및 인플레이션 이벤트, 지역은행위기 관련 이슈,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등 향후 연준의 금리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기에, 각 재료들을 소화해가면서 포지션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

b. FOMC 종료 이후에도 CME Fed Watch 상 연내 6 회 인하 전망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CME 선물 트레이더의 베팅에는 현재 노이즈가 일정부분 껴있는 것으로 판단. 당사도 그렇고, 대부분 증시 참여자들은 연내 6 회 인하 전망이 과도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해오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즉, 이미 3 월이나 5 월 인하 시작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선반영 해왔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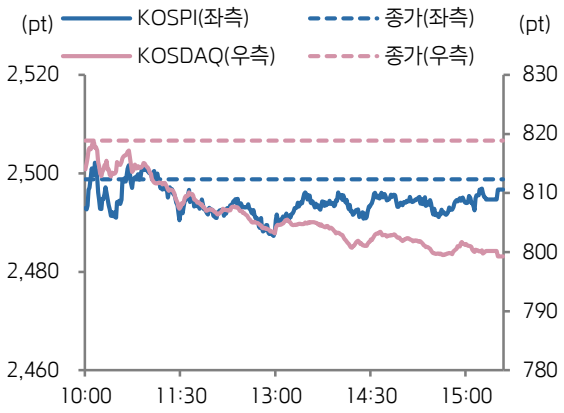
c. FOMC 이후의 미국 증시 하락은 3 월 인하 기대가 후퇴한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가한 것이 맞음. 그렇지만 1 월 중 신고가 경신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 강화, 그간 미국 증시 강세를 주도해온 알파벳(-7.5%), MS(-2.7%), AMD(-2.5%) 등 AI 포함 테크 업종의 실적 부진 영향도 컸던 것으로 판단. 덜 비둘기파적인 FOMC 결과에도 오히려 금리는 하락한 점 역시 증시 입장에서는 생각해볼 부분. 장중 실적을 발표한 뉴욕커뮤니티 뱅코프(-37.6%)가 분기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지역은행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선호 현상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임. 이는 향후 시장참여자들이 경기 침체 문제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것이며, "Bad news is Bad news" 장세로 다시 한번 이행할 수 있음을 시사.

〈금일 국내 증시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1 월 FOMC 경계심리 확산 속 MS, 알파벳, AMD 등 미국 M7 및 빅테크 시간외 주가 부진이 국내 성장주 약세를 유발한 반면, 저 PBR 테마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재차 출현한 여파로 코스닥 중심의 약세로 마감(코스피 -0.1%, 코스닥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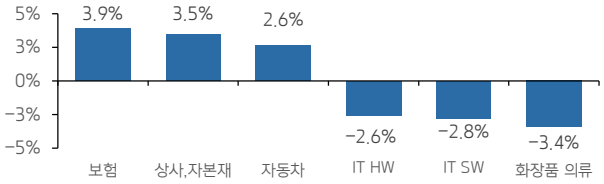
금일에는 M7 실적 경계심리, 덜 비둘기파적인 1 월 FOMC 결과, 미국 지역은행 주가 폭락으로 인한 미국 경기 우려 등으로 하락 출발 예상. 다만, MS, 알파벳 등 M7 실적 부진 이슈와 1 월 FOMC 부담은 전일 국내 증시에서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에 금일 이들 요인으로 인한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며, 장중 미 선물시장 변화, 한국의 1 월 수출 실적(컨센 17.6%YoY, 전월 5.1%)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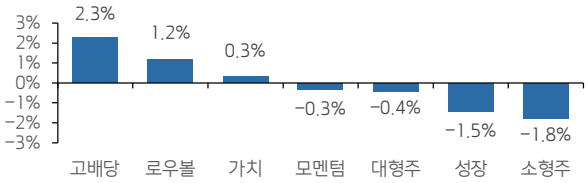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